

情報化시대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김 용 철

〈공주대학교 도서관교육과 교수〉

思想이나 지식이나 情報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媒體(media)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매체의 종류와 형태는 인류문화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지식이나 情報傳達 매체로는 주로 言語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文化遺産의 전승수단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文化의 傳承수단으로는 주로 문자나 기호를 써서 기록한 記錄媒體인 圖書에 의존해 왔다. 시대의 古속이나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문화유산의 전승기관은 圖書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기록매체의 종류와 형태를 역사적으로 考察해 볼 때 기원전 2000년경의 설형문자로 기록된 粘土版에서부터 樹皮, 竹簡, 목간, 양피지, 파피루스 등의 書寫材料가 사용되었고, 종이와 개발되면서 부터 필사본으로 활판 또는 銅版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圖書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科學文明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개발로 磁氣테이프나 光디스크와 같은 驚異的인 새로운 기록매체를 創出함으로써 文字나 기호와 함께 映像과 音盤과 애니메이션 등을 기록하여 그 효용가치를 增大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圖書나 새로 개발된 磁氣테이프나 컴퓨터의 디스켓 등은 모두가 知識이나 情報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목적은 동일하나 지식이나 정보를 담는 그릇, 즉 容器的 形態와 그 효용가치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서가 단순히 종이위에 문자나 그림 등을 기록하는 平面的인 기록매체인 반면에 자기테이프나 컴퓨터의 디스켓이나 레이저디스크 등은 文字, 음성, 영

상 등을 동시에 기록하는 立體的인 기록매체로서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의 기록, 蓄積, 檢索의 측면에서 볼 때 컴퓨터의 디스켓이나 레이저디스크 등의 새로운 매체는 전통적인 도서보다도 월등하게 빠르고 정확한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록매체들의 개발이 情報化 社會로의 移行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제2차 産業革命은 電氣, 石油를 개발하여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20세기 후반의 반도체와 컴퓨터의 개발은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새로운 章을 열게 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19세기 産業革命이 기계와 전기 등의 개발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확장(extension of human hands)이라면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半導體의 개발은 인간 頭腦의 확장(extension of human brain)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발전 보다도 차원을 달리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해서 學校教育의 내용과 방법도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교육을 뒷받침하는 學校 圖書館의 시설, 자료, 운영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은 새로운 情報化 時代의 학교교육에 부응하지 못하고 千篇一律로 圖書 중심의 敎養讀書를 위주로 도서실을 운영해 왔다. 반면에 학교교육은 敎科書만을 暗記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점점

도서관을 외면하게 되었고 도서관은 날이 갈수록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독서실 또는 자습실로 전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有名無實하게 된대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주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圖書館界 교수, 학자, 司書教師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제도나 기관도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적응하지 못할 때 퇴보하고 淘汰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立證하고 있다. 찰스다윈이 주장한 適者生存(the survival of the fittest)이나 自然淘汰說은 비단 生物의 생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制度나 機關의 存續, 發展에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圖書館振興法(1991. 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교의 교육과정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教授學習의 지원, 시청각 기교재의 개발 보급, 讀書教育” 등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6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본격적인 情報化 社會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情報이용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數年間 또는 數十年間 유용하게 활용 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식의 壽命이 짧아져서 끊임없이 새로운 知識과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경이적인 정보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만을 암기시키는 교육만으로는 情報化 社會에 적응하는 人材를 길러내지 못할 것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權力的 移動>에서 ‘과거에는 國力이 軍事力에 달려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情報化 社會에서 權力은 良質의 지식과 情報의 소유량과 활용도에 좌우된다’고 설파하였듯이 良質의 知識과 情報은 토지나 다른 資源에 못지않게 훌륭한 財貨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식과 정보는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學校에서는 당연히 學校

圖書館이 담당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教科書만이 유일한 學習源 또는 情報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교과서 외에도 全 主題에 관련된 單行本, 학술잡지,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 피시, 비디오, 컴퓨터의 디스켓, 음반, 레이저디스크 등 얼마든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의 技術集約的 산업사회에서 知識集約的 情報化 社會로 발달함에 따라 고도의 知識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情報媒體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科學분야, 특히 電子, 通信, 반도체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역사상 어느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경이적인 속도로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다. 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知識과 기술을 교과서를 통해서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다. 결국 학생들 스스로 그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平生教育을 부르짖는 이유도 일정한 교육 과정에 의한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필요한 知識이나 情報를 얻어서 이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느냐 하는 것이 先決課題이다. 이는 바로 學校圖書館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讀書振興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김인희 교수의 ‘책 안 읽을 수록 學歷이 향상되는 이 亡國的인 교육전문가의 교육시책을 개탄한다’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한번 記憶했다 잊고 마는 단편적인 지식을 暗記하는 소위 四肢選多型 客觀式 出題가 얼마나 학생들의 고등정신 능력을 저하시켰는가를 생각해 볼 때 소위 교육전문가는 깊은 반성과 아울러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수십년동안 학생들이 교과서 외의 책을 보면 학력이 떨어지고 교과서

의 내용만 달달 외우면 학력이 향상되는 이 제도가 말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이렇듯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소위 '數學能力 評價'라 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전 공공하고 있다. 요즘은 우리 교육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國家가 인정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教育過程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그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手順이지, 어찌하여 評價方法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 教育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쨌든 수학적 능력 評價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하여 讀書를 권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教育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 된다.

옛그제 까지도 교과서 외의 敎養圖書를 읽으면 學歷이 떨어지고 進學을 못한다하여 讀書를 금지하다가 이제는 다양한 主題의 도서를 폭넓게 많이 읽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이래도 올바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몇몇 학자나 교수의 어설픈 理論이나 주장을 내세워 더이상 우리 교육을 파행적으로 誤導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1세기 情報化 사회의 主役이 될 1000만 학생을 길러낼 百年大計의 教育이 어찌 몇몇 似而非 학자의 어설픈 이론에 휘말려 갈팡질팡해서야 되겠는가? 마치 偏食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가지 음식을 먹듯이, 全人教育을 부르짖으면서 단순한 敎科書의 내용만을 暗記하도록 강요했던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이제는 골고루 精神的 營養素를 섭취하기 위한 폭넓은 讀書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圖書費도 대폭 증액하여 많은 도서를 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책만 사준다고 해서 讀書가 되는 것은 아닐진대 학생들 각자에게 알맞은 책을 선택하

여 效果的으로 읽을 수 있도록 讀書環境을 만들어주고 체계적인 讀書教育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음은 취언을 요치 않는다.

讀書教育이 단순히 읽기지도가 아니고 독서를 통한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은 물론, 情報醇化와 人格陶冶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독서교육 전담교사로 하여금 讀書教育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간혹 독서교육은 국어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讀書가 단순히 語, 文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철학, 종교, 社會과학, 自然과학, 應用과학, 歷史 등의 광범위한 주제에 걸친 독서를 해야 한다고 볼 때 도서의 선택, 정리, 이용, 各 主題背境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배우고 正規教育過程에서 讀書教育을 履修한 司書敎師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숱한 苦難과 逆境속에서도 곳곳에 所任에 盡力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敬意와 感謝를 드립니다. 當局의 無關心속에 방치되어 制度圈 밖으로 밀려난 침체된 學校圖書館을 制度化하고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선생님들의 응집된 結束力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情報化 時代의 우리 學校圖書館은 舊穀을 탈피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資質涵養에 힘쓰고 학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짙는 밑알이 되겠다는 獻身的인 犠牲을 각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司書敎師 연구단체인 <韓國 學校圖書館 研究會>가 韓國敎總에 加入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교총과 힘을 합하여 학교도서관을 제도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聲援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